



‘5월초 개막 목표’ 프로야구 일정 축소없이 144경기 강행

DH·월요일경기도 현실적 어려움... ‘코로나’ 발생시 혼란 불가피

프로야구 2020시즌이 5월초 개막을 목표로 잡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도가 꺾이지 내린 결정으로 오는 21일부터 구단간 연습경기도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일정 축소 없이 팀당 144경기 소화에 대해서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7일 긴급 실행위원회(단장 도입)를 열고 정규시즌 개막을 5월초로 구체화했다.

당초 지난 3월28일 개막 예정이었던 KBO리그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4월 중으로 밀렸고 4월 말, 5월초로 조정된 뒤 이번에는 5월초로 잡혔다.

일찌감치 예고한 구단간 연습경기도 오는 21일부터 펼쳐진다. 팀 당 4~6경기가 예상되며 관중 없이 치러진다. 다만 이 모든 계획 또한 여전히 변수를 안고 있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상존한다.

일단은 5월초 개막 윤곽은 그려졌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고 정부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도 추가 연장이 없다면 19일 종료된다. 그 사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15일)가 치러지며 온라인 개학이지만 학교들도 서서히 개학을 켜 예정이다. KBO와 10개 구단 모두가 같은 긍정적 상황이 이어지면서 대략적인 개막시기를 조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상황을 낙관할 수 없다는 우려가 5월초 개막으로 가능해진 144경기 강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KBO는 5월초에 리그가 개막하면 구단별 144경기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포스트시즌 포함 11월말까지 모든 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포스트시즌의 서울 고척스카이돔 중립경기 가능성도 타진 중이다.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되며 일정에 대한 여유도 생겼다.

그러면서 KBO는 취소 경기에 한해 더블헤더, 월요일 경기 구상도 밝혔다. 우천으로 인한 취소 경기를 즉각 치른다면 일정을 더 미루지 않고 11월말까지 시즌을 소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여러 상황 상 144경기 소화가 가능해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에 따른 현장의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이미 개막이 한 달 이상 늦어지며 시즌 운영 계획이 틀어졌고 선수들의 몸상태도 제로베이스가 되고 말았는데 축소 없는 일정은 체력 저하, 부상 위험, 경기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또 여름철 비가 많이 내리는 국내 기후 특성 상 적지 않은 우천취소가 불가피한 형편이다.

경기 취소 여부를 보수적으로 결정한다 해도 선수와 관중들의 안전을 고려하면 약천후 속에 경기를 강행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취소된 날 휴식을 취하면 된다는 논리는 미리 준비를 하는 선수들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현장에서는 드러내놓고 반발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우려가 있는게 현실이다. 최근에는 일부 외국인 선수들이 2주간 자기격리를 하면서 스프링 캠프에서 쌓은 훈련의 효과가 떨어지자 5월초 개막에 큰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일본 프로야구와 메이저 리그 모두 일정 축소를 감수하는 모양새다. 국내보다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된 탓이지만 선수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인식도 함께한다. 돔 구장이 많은 일본과 늦가을에도 날씨가 따뜻한 지역이 있는 미국에 비해 우리의 여건이 훨씬 열악하다는 진단도 나온다.

여기에 시즌 중 선수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최악의 경우 2주간 리그 중단 사태가 벌어지고 어쩔 수 없이 리그 일정을 줄여야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프로농구, 프로배구가 리그를 조기 종료했고 프로축구 역시 일정 축소에 공감대를 이룬 상황. 프로야구 또한 선수와 팬들의 안전을 위해선 언제라도 고통을 감수하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아라 기자

“축구도 5월에는 시작해야”

축소 불가피...를 잡고 움직이는 K리그

1983년 기치를 올린 이후 한국 프로축구리그의 시즌별 팀 당 경기수는 모두 25차례 변경됐다. 아무래도 초창기에 비해 참가팀이 차츰차츰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일정이 늘어났다. 그리고 리그 운영방식의 변화도 경기 수에 영향을 줬다.

지금껏 K리그는 △ 단일리그 △ 단일리그 + 플레이오프 △ 전·후기리그 + 플레이오프 △ 단일리그 + 스플릿(파이널 라운드) 형태로 운영됐다.

그리고 2013년, 프로축구계의 숙원 사업과 같은 승강제 도입 이후로는 △ 1부리그 : 단일리그 + 스플릿(파이널 라운드) △ 2부리그 : 단일리그 + 플레이오프 그리고 1부·2부 간 승강플레이오프라는 현재의 틀이 유지되고 있다.

K리그 역대 최소 경기 시즌은 1983년의 총 40경기였다. 당시 5개 구단만이 참가했고 팀 당 16경기를 소화해 순위를 가렸다. K리그 역대 최다 경기 시즌은 승강제 직전인 2012년으로, 무려 352경기가 펼쳐졌다. 모두 16개 구단이 했던 때인데 정규 30라운드에 스플릿 14라운드를 포함, 팀당 44경기 대장정을 펼쳤다.

이후 승강제 원년인 2013년 이후로 2019시즌까지는 팀당 38경기

를 치르고 있다.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던 이 틀이 2020년 개질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리그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프로축구연맹이 올 시즌 1부리그를 27라운드로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팀 당 27경기는 정규리그 22라운드에 파이널라운드 5라운드를 더한 숫자다.

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7일 “이제 경기수를 줄이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귀띔했다. 애초 2월 29일 막을 열 예정이던 2020시즌 K리그는 4월8일 현재까지 시작도 못한 상황이다. 처음에 연기를 결정할 때만해도 가급적 ‘정상운영’을 목표로 했으나 이제 고집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연맹 관계자는 “지난주 대표자 회의 때도 축소 운영으로 뜻을 모았다. 38라운드는 무리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면서 “유력 대안으로 떠오른 것은 ‘22R+5R’이다”고 밝혔다.

‘확정이 아닌 검토’임을 전제로 연맹 관계자는 “홈에서 한 번, 상대방 안방에서 한 번씩은 붙여야 하지 않겠는가. 홈&어웨이 1번씩 치르는 개념으로 22경기 정규 라운드를 들고 이후 파이널 라운드 5R를 합쳐서 27라운드를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좋지 않자라면 파이널 라운드를 뺀 22라운드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껏 K리그는 계속해서 ‘신종론’을 유지해왔다. 리그 연기 결정 후 처음 마련됐던 지난달 30일 대표자 회의에서도 낱씨를 특정하지 못했다.

당시 연맹 관계자는 “초중고교 개학까지 미뤄지는 분위기인지만 시점 개막일 특징은 이르다는 게 중론”이라고 분위기를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연맹 차원의 ‘리그 축소안’ 발표라 의미가 있다.

한 축구 관계자는 “프로축구계 분위기가 여전히 신중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차일피일 모호한 자세로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제는 데드라인을 정해야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연맹이나 각 구단들이나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보완할 수 있는 ‘예비안’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리그 축소는 어쩔 수 없다”고 견해를 밝혔다.

축소라는 공감대와 함께 이제는 개막 시점도 수면 위로 올라올 때다. 5월에는 K리그도 시즌에 돌입해야 한다는 것이 축구계 분위기다.

한 축구 관계자는 “대한축구협회도 5월부터는 일정을 시작한다는 게 내부적인 방침”이라며 “프로축구연맹 역시 5월에는 K리그 막을 올려야 시즌을 정상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블헤더’가 김광현에게 선발진 진입 기회...美언론 전망



더블헤더가 김광현(32·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게 선발진 진입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현지 언론의 전망이 나왔다.

‘세인트루이스 포스트 디스패치’는 8일(한국시간) 독자의 질문에 응답하는 코너를 통해 김광현의 선발진 진입 가능성을 내다봤다. 그중 “더블헤더가 많아지면 선

발투수 6명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세인트루이스가 유리한가”라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매체는 “선발 자원이 많은 세인트루이스는 유리할 것”이라며 “파일스 미클라스, 김광현이 선발진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인트루이스는 잭 플래허티와 다크타 허드슨, 애덤 웨인라이트까지 1~3선발을 확정했다. 지난해 마

무리로 활약했던 키틀로스 마르티네스 역시 선발진 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광현으로선 남은 한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 상황. 그런데 변수가 하나 생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개막이 연기되면서 팔꿈치 부상을 입었던 미클라스가 회복 시간을 번 것.

미클라스는 지난 2월 중순 스프링캠프 도중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며 전열을 이탈했다. 확실한 선발 카드인 미클라스의 공백으로 김광현의 선발 진입 가능성도 높아졌다.

하지만 미클라스의 복귀가 가능해지면 김광현의 선발로서 입지는 다시 좁아졌다. 그러나 개막 연기로 시즌 일정이 팍팍해질 경우 더블헤더가 늘어날 수 있다. 김광현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현재 김광현은 세인트루이스에 머물며 개인 훈련을 하고 있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선거
2020.4.15.

“내가 만드는 대한민국
투표로 시작됩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투표 4월 15일(수)
사전투표 4월 10일(금)~11일(토)
투표 시간 오전 6시~오후 6시

* 선거권 연령 : 18세(2002.4.16. 이전 출생자) 이상

“4.15 총선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
모두 함께 지켜요!

신분증
준비하기

마스크 착용하고
(사전)투표소 가기

발열체크 받고
손 소독 후
일회용 비닐장갑 착용

다른 선거인과
1m 이상
거리두기